Ewha Medical School News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며 존경받는 의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16:9)

발행인 : 박혜영 편집인 : 이화영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 양천구 목5동 911-1 전화 02-2650-5703~4 팩스 02-2653-8891 제 30 호 〈 2011. 12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

◎ 2012학년도 이화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최종합격자 발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2월 2일(금) 2012학년도 정시모집 M.D.과정(의무석사과정)과 M.D.– Ph.D.과정(의무석사–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2012학년도 총선발인원은 76명으로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42명, 특별전형에서 4명을 이미 선발한 바 있으며,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일반전형 27명, 특별전형 3명으로 총 30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수시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1단계합격자 중 M.D.–Ph.D.과정 추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M.D.–Ph.D.전형에서는 총 2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정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자의 출신대학 분포는 이화여대를 비롯하여 국내외 최상위권 대학이 골고루 분포하였다. 출신 계열별 분포 조사에서는 생물학, 화학계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전형에서는 외국대학출신 성적우수자 전형으로 3명이 선발되었다.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은 "다양한 전공과 뚜렷한 동기를 지닌 최상의 인재가 균형있게 선발되었다."며 "이 학생들이 앞으로 이화의 울타리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여성의료계를 선도할 큰 꿈을 펼치길 바라며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11년 M2 CPX- I 시행

2011년 M2 CPX– I 이 12월 26일(월)~27일(화) 2일간 의학관 B동 8층 (EMSC, PBL–Room)에서 시행되었다. CPX는 환자 진료를 모의적으로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임상 술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본교는 서울–경기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다. 이번 CPX에서는 컨소시엄 산하의 훈련받은 표준화 환자(SP)들이 투입되었으며, 총 71명의 학생들이 6개의 조로 배정되어, 하루에 3개의 조가 한 사례 당 16분씩, 총 6개의 사례를 가지고 시험을 치렀다.

◎ 의료인을 위한 BLS(Basic Life Support) 과정 개최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와 미국심장협회(AHA)가 승인한 BLS Training Site인 의학전문대학원 시뮬레이션센터에서는 12월 9일(금), 17(토)에 의료인을 위한 BLS(Basic Life Support) provider 과정을 개최하여 총 18명의 BLS–HCP(Health Care Provider)를 배출하였다. 이번 과정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학생 및 간호과학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었다.

의료인 교육과정은 2010 AHA Guideline에 의해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8시간, 강사 대 학생의 비율은 1:3으로 AHA에서 제작한 교육 동영상을 이용한 실습 및 test로 이루어진다. Provider 과정 교육 참여 후 당일 시행되는 2회의 Skill test와 1회의 Written test에 합격한 교육생에 한해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미국심장협회)에서 인증하는 영문자격증이 발급된다.

◎ 김병순 장학금 수여식 개최

2011학년도 2학기 김병순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10월 19일 12시에 의학관 A동 학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수여식은 기탁자이신 김병순 선생님과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학생차장이 참석한가운데 진행되었다. 매학기 의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는 김병순 선생님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란다' 고 격려했다.

◎ 4학년 의사국가고시 준비 격려 점심

의학전문대학원과 이대목동병원이 공동으로 11월 25일(금)에 미래의 수련의인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점심식사를 마련하였다. 박미혜 이대목동병원 교육연구부장과 이지수 임상교무부장이 사회를 본 행사에서, 학생들은 김광호 이대목동병원장과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의 격려사를 들었고, 정혜경 국시위원장이 달라진 국시를 소개해 주었다. 각자 국시를 위해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식사와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아, 의전원은 국가고시가 치러지기 전인 12월 21일(수)에 한번 더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생 및 교수 소식

[학/생/소/식]

* 제 44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선출

2012학년도 학생회가 새롭게 선출되었다. 11월 10일~11일에 걸쳐 진행된 학생회 선거에서 학생회장에는 M1 이수정, 학생부회장에는 함신영 학생이 당선되었다. 44대 학생회의 슬로건 '나무'는 화합과 통합의 의미로, 나무그늘 아래서 잠시 쉬어가듯 학생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학생회가 되어 이화의 사랑과 봉사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수/소/식]

* 산부인과학교실 김영주 교수, 대한주산기학회 남양학술상 수상

산부인과학교실 김영주 교수가 2011년 11월12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주산기학회 정기총회에서 남양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김영주 교수가 진행한 최근 3년간의 학술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회와 의료발전에 공헌한 점이 인정되어 수여되었다.

이 상에 앞서 지난 9월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영주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모자센터를 운영하며 산모와 태아,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각종 연구 실적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 학회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였으며 국내 최초로 '르봐이예 분만'을 도입, 산모와 아기의 분만환경에도 관심을 갖는 등 활발한 국민건강증진 활동과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신경외과학교실 김명현 교수, 대한말초신경학회장 선임

신경외과학교실 김명현 교수가 11월 20일 개최된 대한말초신경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김명현 신임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은 "말초신경에 대한 여러 분야에 걸친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말초신경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수술 및 비수술적 치료법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료원 동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마곡지구에 새병원 건립 부지 마련- 부지 이점 최대한 살려 첨단 글로벌 병원 건립 계획

마곡지구 조감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 병원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SH공사가 마곡지구 의료시설 용지(4만3277㎡)에 대해 실시한 공개입찰에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어 지난 12월 24일 계약완료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새병원이 들어설 의료시설용지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최적의 의료시설 용지로 손꼽혀 왔다.

또한 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국내 지방 환자는 물론 해외환자 유치에도 유리하고 인근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여성암전문병원 및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수탁 경영 병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글로벌 메디컬 클러스터로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메디컬코리아 대상' 2년 연속 수상 - 위암·대장암협진센터, '특화암센터 부문' 최고상

이대목동병원 위암 · 대장암협진센터가 지난 24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된 '2011 메디컬코리아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특화암센터 부문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TV, 한경닷컴이 주최한 '2011 메디컬코리아 대상'은 전문 치료센터 및 진료과목별 명품 병의원을 가리는 시상제도다. 이대목동병원 위암 · 대장암협진센터는 '특화암센터 부문' 종합평가지수 비교분석에서 의료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병원으로 선정돼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수상하게 됐다.

◈ 백남선 이대여성암전문병원장,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외과학교실 백남선 이대여성암전문병원장이 12월 5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18회 신지식인 인증 및 시상식에서 '명예 신지식인'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사)한국신지식인협회(회장 최세규)가 주관하는 신지식인 상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새로운 인간상 정립, 국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두 차례 농업, 어업, 특허 등 10개 분야에서 신지식인들을 선정하고 있다.

동창회 소식

【2011년 송년회 및 해외의료봉사단 지원 바자회 개최】

의대동창회(회장 배순희)에서는 2011년 12월 3일 이화여대 신촌 캠퍼스 ECC관 이삼봉홀에서 2011년 송년회 및 해외의료봉사단 지원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200여명이 참석한 송년회 및 지원 바자회에서는 정성애교수가 "확실히 늘고 있는 암– 대장암을 피해갈 방법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학술강연을 하였고, 뒤이어 하모니카 연주와 마술, 동문 참여 노래대회 등으로 동문들이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송년회와 함께 열린 바자회의 판매 수익금은 해외의료봉사단의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정선 동문 산업안전보건연구 원장 취임】

박정선(27회) 동문이 지난 12월 1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대한산업보건협회 주최 산업보건학술제에서〈혜산 산업보건 학술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2012년 1월 1일 자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본 기관은 산업 재해 및 직업병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연구 기관으로, 취임과 함께한 인사말에서 박정선 원장은 "산재예방연구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국가경제 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퇴임 인사

오는 2월에는 이화의 의학교육의 기틀을 다지신 명기범 교수님과 최수승 교수님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오늘날 이화의대의 교육적 성과가 있기까지 누구보다 이화를 위해 헌신하신 두 분의 교수님을 만나 퇴임 소감과 퇴임 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명기범 교수님

1.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아쉬운 마음도 크고 감사하는 마음도 큽니다. 처음 전문의를 따서 여기서 퇴임하기까지 약 30년의 세월을 이화에서 보냈습니다. 이화에서 인생의 다양한 기회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도와준 동료들과 제자들이 기억에 남고, 퇴임을 앞두게 되니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로 이제 나이가 되어서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 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환자를 만났어야한다는 후회가 아쉬움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오랜 시간 이화에 계셨다. 퇴임을 앞두고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1993년에 목동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별다른 기반도 없이 개원하면서 병원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었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다보니 직원들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번뜩이던 때였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노력한다는 느낌이 모두에게 신뢰와 활력을 주었었고, 이제와서 돌이켜 보니 그런 느낌과 분위기는 어느 집단에서도 흔치 않은 일 같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매우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3. 피부과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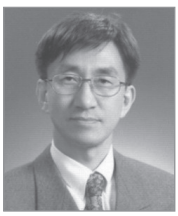
1976년 당시 군대를 마치고 피부과로 진로를 정하게 됐습니다. 피부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위급하거나 중대한 질환이 많지는 않지만 그대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는 질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인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라는 직업인으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피부과가 인기가 많아져 우수한 학생들이 피부과를 선택하고 있어서 아주 흐뭇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4.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의사는 타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가진 의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문인으로서 의사에 머무르지말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고 사고를 넓혀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 갔으면 합니다. 지식만을 습득하는 학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력

1972.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81. 8.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 박사
1981. 3.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 조교수 임용
1990. 9.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장
1993. 3.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1997. 8. 이화여자대학교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 최수승 교수님

1. 이화를 떠나시는 소감을 얘기해주세요.

1993년부터 이대동대문병원에 과장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 이전 1985년에 신촌 연세대에 근무할 때 몇 달 간 이대병원에 와서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의 인상이 깊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친절하여 와~ 이런 병원에서 근무 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는데 1993년에 기회가 와서 바로 그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총장님 이하 모든 교직원님들 베풀어주신 친절과 사랑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처음 왔을 땐 동생 같다가 나중엔 딸 같았어요. 이제 시간이 되어 떠나게 되었는데 조용히 휴가가는 느낌으로 새로운 phase를 맞고 싶습니다.

2. 의사 생활하는 동안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나 환자가 있으신지요?

정말 기억에 남는 환자는 1991년 11월에 수술한 59세 남자 환자입니다. 종격동종양으로 진단되어 내과에서 넘어 온 환자가 수술 들어가 보니 대동맥궁(아치)의 동맥류였어요. 대동맥궁 수술은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고 전신의 혈류순환을 정지하고 하는 어려운 수술인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 수술이 초창기였어요. 마침 미국서 마취를 하시던 분이 계셔서 잘 도와주셔서 대동맥궁을 인조혈관으로 잘 치환하였습니다(신촌세브란스 첫 성공례). 수술 끝내고 보호자들에게 설명하러 나왔더니 많은 가족들이 수술방 앞에 검은 상복을 입고 모여 있어서 놀랐습니다. 수술 중 레지던트를 시켜 보호자에게 대동맥아치 수술한다고 설명 해주라고 했었는데 수석 레지던트가 이 수술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존한 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99% 죽는다고 설명했었다고 합니다.

3. 교수님께서는 이화메디컬오케스트라(EMO)의 지도교수를 오랫동안 맡으시고 학생들과 소통해 오셨습니다. 음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요?

피아노를 원래 좋아했지만 음악을 잘 몰랐습니다. 피아노는 오케스트라에 속한 악기가 아니어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지휘자님께서 같이 연주해보자고 해서 독주도 해보기 전에 피아노 협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4번이나 협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배웠고 음악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우리 인류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보물입니다. 정서의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음악을 더 진지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4. 말씀하시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는 정말 위력이 있습니다. 감사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약력

경북대 의학사, 서울대 의학석사, 서울대 의학박사
군복무(육군소령예편) 1977~80
연세의대 연구강사, 조교수 1987~93
미국 연수(교환교수) 1989~91
이화여대 부교수 1993~
이대 흉부외과학교실 주임교수 1997~2001
음악반(EMO, acoustics) 지도교수 1997~2006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외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국제교류장학기금, 글로벌인재육성기금, 각 교실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금명	후원자	약정액	비고
의대동문교수(행림회)장학금	행림회	50,000,000	이화의대교수
남소자장학금	남소자	10,000,000	동문(15회)
내과학교실 발전기금	이순남	5,000,000	이화의대교수
글로벌 인재육성 발전기금	이순남	3,000,000	
선배라면장학금	유명회	3,000,000	동문(28회)
	이향원	223,240	동문(1회)

알/리/니/다

✚소식지 원고 모집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jkkim9999@ewha.ac.kr)
–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www.ewhamed.ac.kr) 내 학교소개/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
(이화의대 동창회 사무실 TEL. 02) 2650–5782)

【이화의학 역사 전시관(가칭) 설치를 위하여 전시할 자료를 찾습니다.】

2012년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첫 졸업생 선배님들께서 졸업 60주년을 맞는 해인 동시에 이화의대 및 이화의료원의 모태인 보구여관 개원 1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보구여관 개원 이후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125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녔음에도, 이를 널리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아 그 역사와 전통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역사적 의미를 지녔던 동대문병원마저 문을 닫으면서, 이화의대의 역사와 전통은 더욱 보전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화의대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이화 의학의 지난 발자취를 홍보 · 전시할 "이화의학 역사 전시관(가칭)"의 개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동창회 동문님들께서 소장하고 계신 관련 자료의 제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화의학 역사 전시관(가칭)"은 이화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이화의 의학 발전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하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대내외 홍보 수단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이화의학 역사 전시관"은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현재진행형의 공간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이에 의과대학과 관련하여 동문들께서 소장하고 계신 자료들이 있으시면 역사관을 빛내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증 혹은 대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에 특별한 사연이 있어 지속적인 소장을 원하시는 자료의 경우, 스캔한 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교표, 노트 등 어떠한 작고 소소한 자료라도 후학들에게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전하는 소중한 발자취입니다.

"이화의학 역사 전시관(가칭)"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에 의과대학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리며 동문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문의처 및 자료기증 연락처

이화의대 행정실 김정규 (Tel. 2650–2893, e–mail: jkkim9999@ewha.ac.kr)

2. 기증자료물

1) 졸업 앨범 : 1기 ~ 21기, 25기, 26기, 39기 / 2) 학창 시절 사진 / 3) 성적표, 졸업장, 상장 등의 행정 문서 / 4) 업적물 : 훈장, 국가 표창 상장 / 5) 오래된 실험 기구 또는 진료 도구 등 / 6) 그 외 역사성을 나타내는 모든 자료

3. 2011년 12월 31일 현재 기증 물품

졸업기수	성명	기증 물품
3회	조성매	합격증서, 졸업증서, 학위증,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등
18회	안정자	사진
21회	이영주	합격통지서, 전학년 성적표, 수료증서 임용장(전임강사), 사진
24회	신중련	사진
27회	이순남	수료증서, 합격 통지서, 기념 사진 등

이화의학 역사 전시관의 개관을 위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는 이화 의학 교육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 역사 전시관에 큰 빛으로 남을 것입니다.
보여주신 애뜻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발전하는 이화의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동문님의 가정에 안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박 혜 영